

가족주의가치, 서구 전통적 가치의 부부차이

옥 선 화(서울대학교 교수) · 이 미 숙(가톨릭대학교 교수) · 이 주 리(중앙대학교 교수) · 권 희 경 (창원대학교 전임강사) · 남 영 주(서울대학교 강사) · 권 소 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한 개인에게 있어 가치관은 사회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가치관은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옥선화, 남영주, 성미애, 신기영, 2001). 특히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가치관 혼란 상황에 놓여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가족의 단순화, 소형화,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주의, 개인주의, 업적주의 등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명자, 2004). 또한 가치관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그 변화 속도가 상이하므로, 가족구성원간에 가치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가족원간에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가 있는 기혼부부의 가족가치관을 가족주의가치와 서구의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주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家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관이며(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 서구의 전통적 가치는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와 더불어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유입된 가치로 직업적, 사회적 성공, 가족 및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혼부부의 가족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 척도 개발연구” 과제에서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부부 230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평균=24.66, SD=5.18)이 부인(평균=22.97, SD=5.11)보다 가족주의 가치를 더 지지하고 있다($p < .001$). 남편은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 이상, 부인은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주의 가치의 내면화 정도가 낮다는 선행연구결과(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1998)를 지지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유계숙, 유영주, 2002), 산업화와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가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옥선화, 1990) 여성들에 의해서는 덜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편(평균=77.29, SD=8.50)과 부인(평균=77.68, SD=8.12) 모두 서구의 전통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남편과 부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를 통해 서구의 전통적 가치가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앞서 가족주의 가치가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성 중립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